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NGO의 비전과 사명



일시 : 2008년 3월 13일(목) 17:00-21:00

장소 : 굿네이버스 지하 강당

■ 공동주최: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기쁜소식 굿미션네트워크 ,  기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The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 목회사회학연구소

■ 후원 :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목차 / 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NGO의 비전과 사명
강연회

1부. 강연회 주제

- 사회 :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 목회사회학연구소)

① 선한 크리스천 바른 민주시민 :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연구소) 4

② 일반 시민운동과 기독교 시민운동의 같음과 다름 :

양세진 사무총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10

③ 우리는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

한기양 부회장(굿미션네트워크, 울산새생명교회 담임목사) 16

2부. 질의응답

발제 1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NGO의 비전과 사명
강연회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연구소)

선한 크리스천 바른 민주시민

1. 하나님 나라와 시민사회

교회는 대대로 이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다. 교회사적으로도 그 둘의 관계는 끊임없는 투쟁과 협력으로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특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경우 두 왕국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국가와 교회라는 두 가지 제도(institution)를 이 땅에 두셨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악한 인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과 칼을 주셨고 교회에는 은혜와 복음을 주셨다. 이상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은혜와 복음으로 다스려지면 좋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아시기에 율법과 칼을 가진 국가를 두셨다. 이로써 루터에게 있어서 이 둘은 침해되어질 수 없는 영역으로 양립되어지며 동시에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여기서 루터의 탁월한 점은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보았다는 것이다. 서로의 영역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것 같은 그 둘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결국 이 둘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와 비슷한 어조로 기독교 공동체와 시민공동체를 이야기한다. 국가는 교회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지배 바깥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며 그것은 교회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며 시민공동체의 의미를 담지해 나가야 한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이범성: 80)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오심이 되었고 재림의 그 순간으로 아직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 나라는 예수의 회년선포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이야기하듯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라의 임하심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실천신학적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또는 그의 통치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혹시 그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닐까? 또는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 강연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통치의 원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이 땅의 운영의 원리가 될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 나라는 실천신학을 전공하는 강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가장 핵심적 가치들인 그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의 운영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는 시민공동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신학적 통찰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고 사회적 문제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가(可)한가에 대한 논쟁이 우리 교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논쟁을 넘을 만한 시기가 왔다고 본다.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로 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루터의 이해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대명제 앞에서 그러한 분리된 사고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그 정도의 의식적 수준은 이루어졌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서 보았듯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2. 시민사회와 시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인 시민사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시민사회를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정부와 시장에 대응되어 제3섹터라고 불리는 시민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토론과 합의,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는 한 영역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이승훈: 59) 또 다른 측면으로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한 사회의 형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하기는 민주사회 이후로도 보고 있다.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간 우리가 겪었던 권위주의적 정권들 밑에서 꿈꾸어 왔던 사회이며 동시에 그 이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사회는 민주와 반민주라는 두 가지 선택 앞에 강권되어져 있었다.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은 수렴되어졌고 다양성은 방관이라는 낭만으로 치부되어졌다. 민주화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미이긴 했지만 그 앞에서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이에 반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다양성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논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공공의 목적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정치가 거대한 담론을 형성한다면 시민사회는 생활의 주제를 들고 들어오며 거대담론들이 있고 있는 주제들에 주목한다. 거기에는 소외된 자연이 있으며 사회적 질서와 인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집단주의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족주의의 강력함은 그 어떤 나라보다 더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고백해 왔다. 일 개인이 무슨 그런 거대한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려서 그러한 문장을 외울 때 마다 마음에 뭉클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다. 그러나 침착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연자가 오래시간 유학하였던 독일에서는 2001년 대통령인 라우가 자신은 독일인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은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에는 민족주의가 대단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들은 2차 대전의 참상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극우적인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독일의 대통령인 라우의 언급이 나온 것이고 당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강연자가 느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어떠한 반응을 얻을 것인가이다. 분명 민족적인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사들이 난무하고 탄핵이라도 불사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라우의 주장은 일면 옳은 면이 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의 자부심과 관련이 있을까? 강연자가 생각하는 오히려 그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강요되어진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집단주의가 개인을 사로잡은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집단주의는 결국 각 개인의 생각을 저해하고 해방된 개인으로서의 사고와 삶을 가로막게 된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이렇게 큰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그만 집단들도 나름의 집단적 의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를 보아도 그렇다. 활발한 논의보다는 상사가 지시하고 훈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의 형태이다. 그런 자리에서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주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해방된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남미의 해방적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침묵의 문화'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억눌린 자들은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있다. 아직 대한민국의 개인들은 집단주의 안에서 이렇게 침묵의 문화를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집단주의로부터 해방된 주체적 개인의 형성이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과 토론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이 있어야 시민사회의 기본이 준비되는 것이다.

또 시민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구들을 뛰어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즉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물질을 들여

참여하는 자들이다. (정재영: 98)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주체화된 시민이 어떻게 공동의 장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주체화된 개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화된 이기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의 오랜 고민이다. 공동체를 상실한 개인들을 어떻게 다시 공공의 장으로 이끌어 내며 공공의 선을 위해 수고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다.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해방된 개인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진 공동체이며 동시에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도덕공동체의 형성이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민사회라는 공공의 장을 통하여 추구하는 바는 여기에 있다.

3.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교회에 주어진 과제는 첫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화된 시민의 형성이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훌륭한 시민교육기관이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 조선은 개화기였다. 개화라고 하는 것은 개물화인(開物化人)의 약어이다. 그것은 물건은 열고 사람은 변화시킨다는 의미였다. 개화세력은 당시 서구의 문물을 들여올 수 있는 것도 기독교이며 유교적 전통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기독교였다고 보았다. 실제로 한글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혁명을 이룬 개신교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400여년을 쓰지 못했던 사대적 사상을 개조하고, 한문이라는 어려운 글말체계를 변화시켜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생활의 다양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회는 한글교육에 힘써 예배 전에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회의 직분을 얻는 시험에서는 한글시험을 치러 한글을 알아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시 한문문화에 터된 유교적 사회시스템을 대치하여 기독교가 민족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전통은 일제시대를 거치며 면면히 이어져 왔고 특히 산업화 시기 때 사람들에게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조성돈: 목회사회학 7장)

이제 교회는 이러한 교육적 전통에 힘입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민을 세워나가는 일에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이것이 바로 시민교육이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기회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인들을 시민적 교양을 갖추 바른 민주시민으로 의식화해 나가야한다. 독일의 유명한 실천신학자인 랑에는 이미 언급한 프레이리의 '침묵의 문화'를 언급하면서 일찍이 교회는 '자유의 언어학교'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Lange: 125) 복음은 사람들을 일깨워 자각하게 하고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의식이 사회적 관심과 연결되어진다면 의미 그는 훌륭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특히 교육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교회가 처해 있는 민주시민사회 속의 교회를 의식에 두는 열린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우리의 교인들을 선한 크리스천으로 동시에 바른 민주시민으로 세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수고하는 기독교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소명의식이었다. 5명의 활동가들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그들 모두는 복음주의권의 배경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 때 선교사를 꿈꾼 적도 있었고 목회자가 되

어야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시민단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직(聖職)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아니 그러한 거창한 이유는 아닐지라도 이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회적 정의를 일깨우며,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이들이 일하는 그 곳은 직장으로서는 그리 좋은 곳은 아니었다. 때론 턱없는 박봉이었고 일하는 자리들도 허름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람되게 수고할 수 있는 소명의 현장이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는 벌써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소명의 자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현장이다. 이제 교회는 이 자리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우리의 교인들을 보내야할 것이다. 아니 그것은 파송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발견이며 동시에 삶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명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교회는 이곳에 우리의 교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그 능력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조성돈: 122)


둘째로 교회는 참여의 통로가 되어야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연결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 제 단체들보다 훨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 통로를 제공하면서 교인들이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그간 사회적 참여에 활발했던 교회 두 군데의 교인들도 참여를 했다.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느낀 것은 교인들이 사회적 봉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교회에 동참하기 전에는 사회적 봉사에 참여하길 원했으나 개인적으로 그러한 통로를 찾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교회가 목회적 방침으로 그러한 일을 하니 삶과 신앙의 보람을 느낀다는 고백을 하였다. 때로는 교회의 이러한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일부러 이러한 교회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교회는 교인들을 그 울타리 안으로만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확인하여 그들이 적절히 수고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교회가 직접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를 통한 교육을 위하여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동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교회의 소그룹을 이용하거나 테마를 가진 예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전문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봉사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계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그 단체들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가치의 창출과 유지이다. 시민사회는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가치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바로 이 가치들을 창출하며 그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실천신학적 이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성경적, 신학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개인적 의견에 비추어 본다면 사랑, 정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다. 그러나 사회는 아직 이러한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경험되기에 이 사회는 아직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가치들에 익숙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것을 성경과 설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교회는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교회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해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강연을 맺으며

사회는 어쩌면 별 수 없이 지독한 욕심에 갇힌 각 개인들의 집합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더 나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집단 속에서 파리를 틀고 수많은 남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은 그 집단 속에서 생각 없이 자신을 투영해 내며 경쟁과 이기로 자신과 공동체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이 욕심에 터진 집단과 이기의 굴레를 초월(박영신: 35)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공동체에 의지된 시민사회의 형성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사회적 형체가 감당하여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이제 이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다양한 통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된 우리 교인들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망을 맞보아야 할 것이다. 

발제 2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NGO의 비전과 사명
강연회

양 세 진 사무총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 시민운동과 일반 시민운동의 같음과 다름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0.

오늘 강연회는 굿미션네트워크의 후원으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시민사회속의 기독교회] 출판 기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1987년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로 출발하여 21년의 역사를 갖는 기운실이 미처 해내지 못한 귀한 일을 해 낸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로 오늘 강연회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시민운동과 일반 시민운동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 시민운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적인 소개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전체 시간진행상 생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NGO와 NPO라는 개념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적어도 NGO와 NPO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이 얼마나 부적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NGO는 유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간 대표자들의 모임인 UN에 정부 대표가 아닌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비정부기구라는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는 세상의 가치를 정부 기구에 두고 바라본 세계관의 결과물입니다. 즉 세계에는 정부 기구와 정부 기구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접근입니다. 왜 세계를 정부 기구 중심으로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은 분명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삼성은 비정부기구입니다.

다. 즉 NGO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NGO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NGO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NPO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 시민사회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이면서 법률가인 랄프 네이더가 바로 NPO라는 개념을 태생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랄프 네이더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네이더의 행동은 기업인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고 고약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즉 이익(profit)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네이더처럼 기업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사람이거나 조직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익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익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NPO라는 개념도 잘 들여다보면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과 이익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환경부도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입니다. 즉 NPO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NPO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NPO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익을 위해 자발적, 독립적, 시민참여적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통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통은 그냥 시민사회단체라는 의미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하며,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CO(communi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VO(voluntar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기독교 시민운동과 일반 시민운동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먼저 고민하고자 했던 것은 왜 다원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반 시민운동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굳이 기독교 시민운동이라는 범주로 영역을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일종의 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의, 평화, 환경, 인권, 복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여성과 같은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운동이면 되지 굳이 기독교 시민운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념적으로 기독교 시민운동이라고 했을 때 단체의 명칭에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단체 명칭에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 조직은 분명 기독교 시민단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본격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시민운동과 일반 시민운동의 같은 점에 대해

서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① 보편적 가치를 추구 : 정의, 평화, 환경(창조세계 보존), 인권, 복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여성 등
- ② 자발적, 자율적, 독립적인 조직 운영(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시민운동의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③ 타자 지향적인 공익 추구
- ④ 인간다운 삶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조
- ⑤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 재정적 참여 등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정도로 같은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

이제 본 강연회의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즉 왜 우리는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시민단체를 위한 변증 이전에 저 자신을 위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참여연대와 아름다운가게라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윤실에서 기독교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연대 이전인 10년 전에는 기윤실 간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기윤실로 돌아와 기독교시민운동을 하면서, 계속되는 물음은 일반 시민운동과 기독교 시민운동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독교' 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 기독교 시민운동을 해야 하고,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 시민운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존재론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왜 기독교 시민운동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상근 실무자로서 우리들은 왜 일반 시민운동이 아닌 기독교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다음으로는 기독교 시민단체에 이사, 집행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임원과 전문가 자원지도력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임원으로서 우리들은 왜 일반 시민운동이 아닌 기독교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독교 시민운동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며 참여하고 있는 후원그룹과 회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후원자로서 우리들은 왜 일반 시민운동이 아닌 기독교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실상 조금만 관심을 갖고 꼼꼼히 검토해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나 조직의 규모, 또 단체가 추구하는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내가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곳 보다, 그리고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곳 보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 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에서 던지 세 가지 존재론적인 질문은 비단 기독교 시민운동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맥락으로 범위를 좁혀서 논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즉 기독교 시민운동과 일반 시민운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역시 몇 가지 범주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이념 vs 영성

(그리고 단체의 활동이“형식(언론 보도 중시) vs 내용(실재적인 활동의 가치 중시)”인가 또는“개인 변화(사회서비스 제공 중심) vs 사회 변화(체제 변화)”인가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일반 시민운동과 기독교 시민운동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② 외적 동기(사회적 평가나 인정) vs 내적 동기(존재의 소리에 응답)

③ 현실성과 타당성 vs 초월성

④ 대표자(representative)와 대리인(agent) vs 실천자(practice)

3.

이제 차이점으로 구분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① 이념 vs 영성

일반 시민운동은 어떤 이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혹은 자유, 평등 등 각각 그 단체나 단체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들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념에 대한 헌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칼 포퍼는 ‘젊은 시절 마르크스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안다고 말해서는 곤란하며, 늙어서까지 마르크스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경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진보적인 이념을 지향하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민운동은 이러한 이념적 토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보다 다른 차원의 깊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운동가들은 생태적 영성을 추구하고, 문화운동가들은 문화적 영성을 말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영성은 일종의 범신론적인 신관에 기초하거나 자기 내면과의 대화, 인간과 존재의 실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는 그 깊이와 넓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엘리스터 맥그라스는 [기독교 영성베이직]에서 영성(spiritua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다”. 즉 영성이란, 실제 삶에서 한 개인의 종교적 신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한 개인이 믿고 있는 바를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말은 잘 알듯이 ‘Christ + ian’의 결합어입니다. 여기에서 ‘ian’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야뉴스’에서 기원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따르다고 했을 때 따름의 의미는 단순한 추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이 전제된 따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회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와서 먹고 마시고 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와서 세상을 섬기다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시민운동가 인가 기독교 시민운동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는 나를 지탱시키는 영성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② 외적 동기(사회적 평가나 인정) vs 내적 동기(존재의 소리에 응답)

앞에서 일반 시민운동과 기독교 시민운동의 같은 점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정의, 평화, 환경, 복지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기아대책 같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재정적 참여는 엄청난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체계화된 자본주의 체제로서 현대 사회에서 많은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민운동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뿌리 깊은 곳을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평가나 인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부르신 이가 요청하는 삶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삶, 즉 존재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내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느냐가 일반 시민운동과 기독교 시민운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를 그만둘 때, 아름다운가게를 그만둘 때 저에게는 사회적 평가나 인정을 넘어서는 바로 이러한 존재의 소리에 응답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일생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가복음 10:43-45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죽기까지 따르기로 한 예수는 단순한 예수가 아닌 타자를 섬기러 오신 예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삶으로서 일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체의 활동이 더해갈수록 힘이 빠지고, 성장의 한계를 느끼지만, 존재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기독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더욱 큰 성장을 지속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시민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 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Renovare)”(고후 4:16)

③ 현실성과 타당성 vs 초월성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시민운동은 법적 현실성의 문제나 보편적 가치가 추구하는 타당성의 영역에 그 활동을 머무르게 하지만, 기독교 시민운동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바로 그 자리로부터 비롯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오스카 쿨만이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속에 살고 있지만(현실성과 타당성의 영역),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구호나 주장, 사업이 실행되고 성취되었다고 해서 운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초월성에 기반을 둔 기독교 시민운동은 이미와 아직도 아님 사이의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운동은 현실성과 타당성의 영역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기독교 시민운동은 긴장의 균형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representative)와 대리인(agent) vs 실천자(practice)

예전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시절 단체와 후원 회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 하는 문제로 간부회의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간부들은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회원들은 시민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단체는 대표자(representative)로서 지지하고 후원하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누가 당신들을 국민의 대표로 세웠는가?' 라는 논리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으며 있었습니다. 그 뒤에 몇몇 시민단체에서 회원들의 뜻을 좀 더 실질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총회의 형식을 바꾸어 가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기윤실도 지난 2월25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 2008년 기윤실의 10대 핵심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회원들이 투표로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귀를 기울인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내는 회원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한다면 하나의 이익집단이나 친목동호회로 전락하지만, 그러나 대리인(agent)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운동은 회비를 내는 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먼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주도성뿐만 아니라 단체를 위해 애정 어린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회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서 활동을 실행해가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민운동은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스탠리 존스의 영적 자서전인 [순례자의 노래]에는 인도의 간디와 가진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게 기독교를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고 물었을 때 간디는 주저 없이 '첫째,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시민운동이 일반 시민운동과는 구별되는 4번째의 중요한 차이는 단체가 추구하는 활동의 사업적 성과 이상의 열매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민운동과 함께 하는 회원 및 동역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기독교 시민운동은 진정한 열매를 맺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굿네이버스를 후원하는 회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도 빈곤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기독교 시민운동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윤실 역시 기윤실을 후원하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때 기윤실은 비로소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위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힘찬 행진을 지속해 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3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NGO의 비전과 사명
강연회

한기양 부회장

(굿미션네트워크, 울산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우리는 어떻게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이웃이 될 수 있는가

—교회의 의미를 넓혀볼 때, 기독교 NGO 역시 한국교회의 일부이다. —

1. 한국기독교의 위기

200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조사에서 개신교 인구가 크게 줄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졌다.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경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개신교 성장이 자연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신교 인구 감소를 알리는 이 통계는 같은 기간 중 가톨릭 신도의 증가와 맞물리며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개신교가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심장한 예시적 증표로 읽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100여 년 전 유입된 개신교는 시대적 과제인 개화와 독립의 문제와 씨름하던 민족의 종교였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는 시대정신과 민족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단별로 '영적 각성'이니 '사회봉사'란 이름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곤 있으나, 그에 대한 민족적·시민적 신뢰가 크지 않다. 교회가 주는 샘물, 곧 복음에 대해 목말라하는 사람이 적다는 반증이다. 교회가 퍼놓은 샘물 역시 맑지 않다는 것이 교회를 향한 민초들의 평가인 것을 힘들지만 인정하라는 것이다. 한국기독교는 더 이상 '좋은 이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 교회세습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내의 부정적 행태들이 이 땅에 유배된 기독교인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사적 단체로 민족에게 각인되는 한, 과거 불교, 유교가 그랬듯이 개신교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2. '좋은 이웃'이 되려면 원인 진단부터

이처럼 오늘의 한국기독교는 정체되고 '위기'를 맞아, 이 땅의 민초들의 좋은 이웃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방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한국기독교의 위기란 말인가?” 양적인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인가? 한국기독교의 위기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데에서 위기의 내용을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본질적 위기의 첫 번째는, 경제우선물질주의(맘몬)의 유혹에 깊이 침윤돼 있는 점이다.

하나님 중심을 입으로 말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도 물질(경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다. “잘 살아 보세”, “금강산도 식후경”, “평 잡는 게 메”라는 사회적 추세(홍수) 속에 민족 모두가 넘어졌고, 교회 또한 넘어진 것이다.

놀랄 만한 경제성장 속에 교회마저도 ‘말씀’(바르게 삶, 참을 붙잡는 일, 공의와 진실을 귀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일에 우선하지 못하여 도덕성과 인간성이 무너져가는 데도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거나, 적추신경이 마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교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적 위기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지금도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추세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했고(극히 소수만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하거나 망명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진실한 죄책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07년9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92회 총회에서 공식 결의하여 죄책고백을 선언하고, 2008년 3.1절기념주일을 ‘신사참배회개주일’로 전국교회가 동시에 지켰다.), 민족분단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친일민족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크게 기여했으며, 군부독재정권에 대해서도 교회의 발전을 위해 조찬기도회를 통해 축복기도도 해주고 친미반공의 깃발 아래서 권력집단의 입맛에 맞는 일을 양심의 갈등도 없이 서슴없이 앞장섰다. 로마 황제 권력과 야합하여 크게 성장한 중세교회가 결국 황제종교로 전락했던 것과 같다고나 할까.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라지만 “잠깐 고개 숙여주고, 입 다물어 정치적 긴장을 회피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서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니, 권력과 적당한 인간관계(사두개적 야합)를 잘 유지하여 선교목적을 이루자”는 생각이 교회부흥 성장론자들의 처세술이었다면 지나친 비판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남겨두셨다.

그 세 번째는,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간 교회지도자들의 문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철저한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회를 ‘경영’하며 모든 좋은 일은 다하는 ‘슈퍼맨’의 모습을 추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의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목회가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영적 교류와 영적 상담이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신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문제쯤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은 아닌가. 그래서 급기야 이런 추세는 ‘영혼의 내적인 빛’을 밝게 하고 ‘종말론적 공동체’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영성신학에 관심하기보다는 교회경영과 급성장 방법론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성숙시키는 관심보다는, 제도적 교회의 관리와 운영치리에 실질적인 시간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세 번째 유혹(명예, 드러냄, 교만)에 넘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개혁이나 설립을 계획할 때, 선교적 관점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한 '낮은 곳'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이른바 '목이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로 이기적 '개교회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교회 하나하나가 건강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지역적·교단적 공교회의 연대활동을 소홀히 하여 '뭔가 보여주는' 식의 자기완결구조(심지어 교회의 이른바 '브랜드'화하는)를 고집하면, 설령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자기자랑이 더 앞서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모두가 개탄하면서도 추세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모두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모두 상품적 가치관으로만 바라보면서 개별화되고 공동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의 홍수'에 교회마저도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좋은 이웃'이 되기 전에 우선...

이웃 중에서 평범한 '보통 이웃' '나쁜 이웃' '좋은 이웃'으로 나누어볼 때, 우리는 '좋은 이웃' 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국기독교는 좋은 이웃이라고, 혹은 적어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한국기독교는 더 이상 '좋은 이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빌어 말하자면, 교회가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 쓸모없이 되니 버려져 짓밟힘을 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좋은 이웃'은커녕 최소한 '보통 이웃'은 넘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바르게 이끄는 '윗물'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며 “바르게 서라”고 비판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통회하며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한국기독교의 근본적 위기인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경제우선물질주의(맘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서야 한다.

부자들의 '금과 은'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닢'을 더 무겁게(막12:41~43) 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저울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마6:24)는 주님의 단호하신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신앙을 분명히 행동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와의 소통하는 방식은 경제적인 상거래에서 하는 상호주의가 아니다. 스스로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사회로 하여금 사회 되게 하는 자율적이며 일방적인 참여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물질적 거래상의 어떠한 분깃이나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사회가 타락과 부패와 불의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건강한 실체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효소가 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녹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강고한 고체로 커져만 가며, 액체로 녹아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와 단절되어 권세와 물질의 성을 옹호하는 맘몬(황금만능주의)을 주인으로 섬기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교회에 모이는 수의 힘은 흠어지기 위한 선교의 힘이고, 모아지는 헌금의 힘은 나눔을 위한 봉사의 힘이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우선적인 자세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아짐'이 '흠어짐과 나눔'으로 액체화되지 않으면, 사회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도 부패한다.

교회가 맛을 잃고 부패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덩달아 같은 흐름에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맛을 잃고 부패한 교회를 밖에 버려 밟히게 하실 것이다. 섬김과 나눔으로 '녹아서 스며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요3:16) 그 분의 뜻에 따라 이 사회의 양심이 고자 한다. 사회구조의 도덕적 속사람이고자 한다.

사회구성체의 모양이나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나라를 심는다. 기독교 정당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당들 속에 하나님나라의 진실을 근간으로 삼게 헌신한다. 기독교 기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기본 가치를 실천하게 한다. 교회를 하나의 강력한 종교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뜻을 심는다. '녹아서 스며들'은 위에서 균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요, 고통 받는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첩경인 것이다.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마5:13)이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 소금이 짠맛과 방부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고체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액체로 녹아져서 음식 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을 단순히 소금의 물리적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소금의 존재이유 혹은 소금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기독교회가 사회 속에서 단단히 화석화된 체제나 제도, 종교화된 견고한 집단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므로 세속적 사회와 다르다고 자신을 내세울수록 사회를 구원하는 소금이 될 수는 없다. '권력의 맛'을 탐하는 고체로 견고히 남으려 자존과 권위를 고집하며 액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한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

고체가 액체화된다고 소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적 봉사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짠맛을 맛보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도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성스러움(?)'을 내세우며 완고한 고체적 실체, 곧 신앙의 집단이기주의로 고체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소금인 교회와 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의 소통은 먼저 교회가 먼저 자기이익을 포기하고, 소금이 녹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10:38) 헌신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 세 번째는,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간 교회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마5:14)이라 하신 말씀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주님의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금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방식이라고 한다면, 빛은 교회가 사회의 현실 안주를 넘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유이다. 소금이 자기희생적 봉사라 한다면, 빛은 사회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등불이다. 소금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적 죽음을 말한다면, 빛은 그 분이 직접 실현하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말한다.

교회는 단순히 죽기 위해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회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구원을 위해 헌신한다. 교회에 자긍심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부활 생명에 먼저 동참하는 ‘구원받은, 구원받을 사회’임을 자임하는 일이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의 경우,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신 택한 민족이었고 축복이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이스라엘은 스스로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민족주의화 했고, 하나님 신앙을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여 유대주의화한 것이 치명적인 오류였다. 먼저는 이스라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민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이다.

우리도 교회만의 구원공동체로 스스로 철옹성을 쌓으면, 먼저 선택받은 축복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만민의 구원을 위한 선발대로 세웠듯이, 교회를 먼저 구원받은 공동체로 택하심은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한 전위대로 세우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주의화 할 수 없다. 교회는 사회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열린 공동체이다.

촛불이 스스로 타면서 빛을 발한다. 희생적 봉사가 생명의 빛을 발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빛은 바로 교회가 사회에 향해 ‘좋은 이웃’이 되어 스스로를 포기하며 희생적인 섬김의 봉사를 행하는 그런 빛이다. 그것은 곧 녹아지고 스며드는 소금 속에 이미 빛이 빛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십자가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부활하셨다. 거꾸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이다. 십자가의 미래는 부활이고, 부활의 현재는 십자가인 셈이다. 녹아지고 스며드는 소금 속에 빛이 잉태되고 이미 환하게 사회를 비추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는 한국기독교가 십자가 위에서 발하는 부활의 빛을 비춰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부활 승리의 빛이 여전히 십자가 그늘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마11:28)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를 고대한다.

그런데 교회가 발하는 빛은 반사체로서의 빛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반사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들려야 할 영광을 교회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된다.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교회의 실존 근거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세계 속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데 헌신한다. 교회가 스스로 빛을 지니고 있다는 교회주의적 오만에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오만이 아니라 허위일 뿐이다.

매 삼 년째에 드리는 구제의 십일조(신14:28-29)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구제용 십일조도 부정한 흙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없다(신 26장)는 규정은 구제용 십일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곤란에 처한 이웃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주님을 따를 뿐”이라는 자세로 이웃을 섬길 때, ‘좋은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이기적 '개교회주의'를 청산하고 공교회로서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 역시 각 교회들이 대 사회적 공공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연대의식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단순히 교회의 연합기구의 구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구적 발상은 편견이다.

중요한 것은 연합기구를 만들면 항상 따라오는 자리다툼 내지는 집단이기주의의 발흥으로 또 다른 사회적 지탄이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우선 사회적 이슈별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하면서도 유기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기독교적 정강정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기독교적, 복음적 보편성을 담보하는 기본 가치관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의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 전문화될수록 보편적이며 기본적 가치를 선명하게 깃발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맺는 말 – 우리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로 분류된 구원의 기준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위문했으나,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종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자기들의 중요한(?) 일들을 핑계로 지나쳐 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당시 유대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라 여기며 회피하며 비하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 보수정통을 자랑으로 삼는 교회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만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돌보고 여관, 곧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비까지 대납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가 '좋은 이웃'이었고,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눅10:37) 곤궁한 사람의 삶에 자기 위험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참여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같은 '좋은 이웃'의 자세를 수미일관 되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기록이 없어 유추할 뿐이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억울하게 강도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강도를 잡으러 나서거나, 강도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병자와 건강한 자가 더불어 사는 삶의 양식이 제시된다.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마9:2)는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신다. 그는 함께 온 친구들과 더불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이웃'의 삶은 동참하고 연대하는 양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희망의 신학을 말하는 튀빙엔 대학교의 조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타자를 위한 삶'에서 나아가 '타자와 함께 하는 삶'을 이야기한다. 연대와 배려와 섬김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고전9:19) 유대인들과도 보조를 맞추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보조를 맞추면서 섬겼다. 이 같은 섬김과 배려의 삶의 자세에서부터 오늘 한국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The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는

역사의 세속화로부터 다가오는 몇 가지 위기적 징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서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한한 영적 에너지와 잠재력을 그 몸 안에 간직하고 있음도 자랑스럽게 긍정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역사의 세속화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직시해야 하는 시점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는 지금도 심판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안에 있음을 신앙의 눈으로 분별하고 긍정해야하는 고백의 자리에 와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교회는 그 존재근원과 존재이유 그리고 존재양식까지도 다시 회복해야하는 절박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서 증언하는 중인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 물음을 안고 씨름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존재 이유'를 되찾고, '교회존재 양식'을 새로이 구조화하여 하나님나라의 임재와 한국교회의 영적 잠재력 사이의 만남에 불을 당기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 대학원은 이미 실험을 끝마친 '통합 커리큘럼'이라는 초유의 교육과정과 '공동교수법'이라는 초유의 교육방법으로 새로운 교회 세우기,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 하였습니다.

설립목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역사적 현존과 증언을 위하여, 창조적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교회 연합으로 뛰어가고,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이 창조해가는 영성과 전문성의 고위실천신학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육의 특성(Educational Philosophies)

1. 한국기독교공동체의 정체성회복과 선교적 사명을 신학화하고 또 모형화하는 통합 교과과정을 구성합니다.
2. 한국교회의 변혁과 하나님 백성공동체 실현을 주도해 갈 창조적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교회연합의 공동교수팀과 원생목회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참여공동체를 통하여 명실 공히 교회연합의 현장을 실험하고 또 실현합니다.
4. 모든 신학대학원(국내외)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폭 넓은 정보교환, 교수참여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5. 모든 교과과정은 '영성'과 '전문성'의 양면성과 통합성에서 구성되며 ①교회의 정체성 ②교회의 실천 ③목회의 패러다임의 영역에 집중합니다.
6. 교수진은 전임교수, 석좌교수, 국제초빙교수, 겸임교수, 초청교수, 임상교수로 구성되는 공동교수팀으로 조직하며, 모든 수업은 공동교수가 진행하는 공동교수법(Team Teaching)과 원생의 모형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7. 학위는 '실천신학석사(Th. M. in Practical Theology)'와 '실천신학박사(Ph. D./Th. D. in Practical Theology)'를 수여합니다.

☎ 전화 : 031-638-8657~8 ☎ 팩스 : 031-638-8659 ✉ 이메일 : mail@gspt.ac.kr

🌐 홈페이지 : www.gspt.ac.kr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9번지

목회사회학연구소

목회사회학연구소는..

목회사회학이라는 틀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문공동체의 이름입니다. 본 연구소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과의 통합적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를 밝히고 그 속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사회학을 통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목회적 자료로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11월 '2005 인구주택총조사 그 이후,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톨릭 성장'이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하며 연구프로젝트 "가톨릭으로의 개종자 심층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며 매 포럼마다 연구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학문적 봉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상중이며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목회사회학인가?

목회자들의 오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며 교인들로 하여금 이 말씀과 전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일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미지화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바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천신학의 과제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목회자의 여러 가지 목회적 행위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돌려 우리에게 맡겨진 교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 눈을 돌리고, 그 교인들의 사회적인 삶, 그리고 이 교회가 사회에서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실체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사회학이라는 학문의 분야는 오늘 이러한 고민과 과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홈페이지 : <http://club.cyworld.com/kp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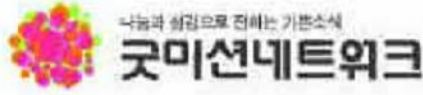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은 국제비영리단체로, 2007년에는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관련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새천년개발목표상(MDGs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아동권리보호(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네트워크(Network), 사회교육(Advocacy)을 목표로 국내, 해외, 북한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장 텔런트 유인촌, 친선대사로 텔런트 최수종, 최진실, 가수 유열, 홍보대사로는 개그맨 박준형, 정종철, 김종석, 텔런트 김선아, 변정수, 유준상 씨 등이 굿네이버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굿네이버스 주요사업

국내에서는 2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4개 쉼터를 통한 아동권리보호사업, 32개 지부와 협력시설을 통한 결식아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는 북한 9개 육아원 지원사업, 축산지원사업, 의료·보건을 통해 북한의 동포를 돕고 있으며, 해외 21개국에서 긴급구호 및 제3세계 개발사업을 통해 전문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전화: 02-6717-4000 ■ 사랑의 ARS 060-700-0090 ■ 팩스: 02-6717-4294
- 이메일: gni@gni.kr
-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org
- 주소: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014번지 굿네이버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굿미션네트워크는 굿네이버스의 선교협력기관 으로서, 교회의 해외선교와 북한선교를 NGO와 긴밀하게 연계 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적인 선교사역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한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이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1\$ 이하로 살아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12억의 지구촌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한국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지치고 힘든 우리 동포와 지구촌 이웃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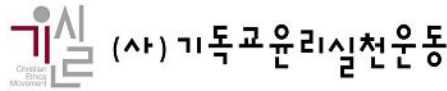
사업



주소 (우 140-13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1-4 굿네이버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갈월)역 10번 출구로 나오신 후 우측 갈월동지하차도를 통과하시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신 후 우측으로 100m 정도 오신 후 "프린팅홀로"와 "세양수산" 사이의 골목 안에 굿네이버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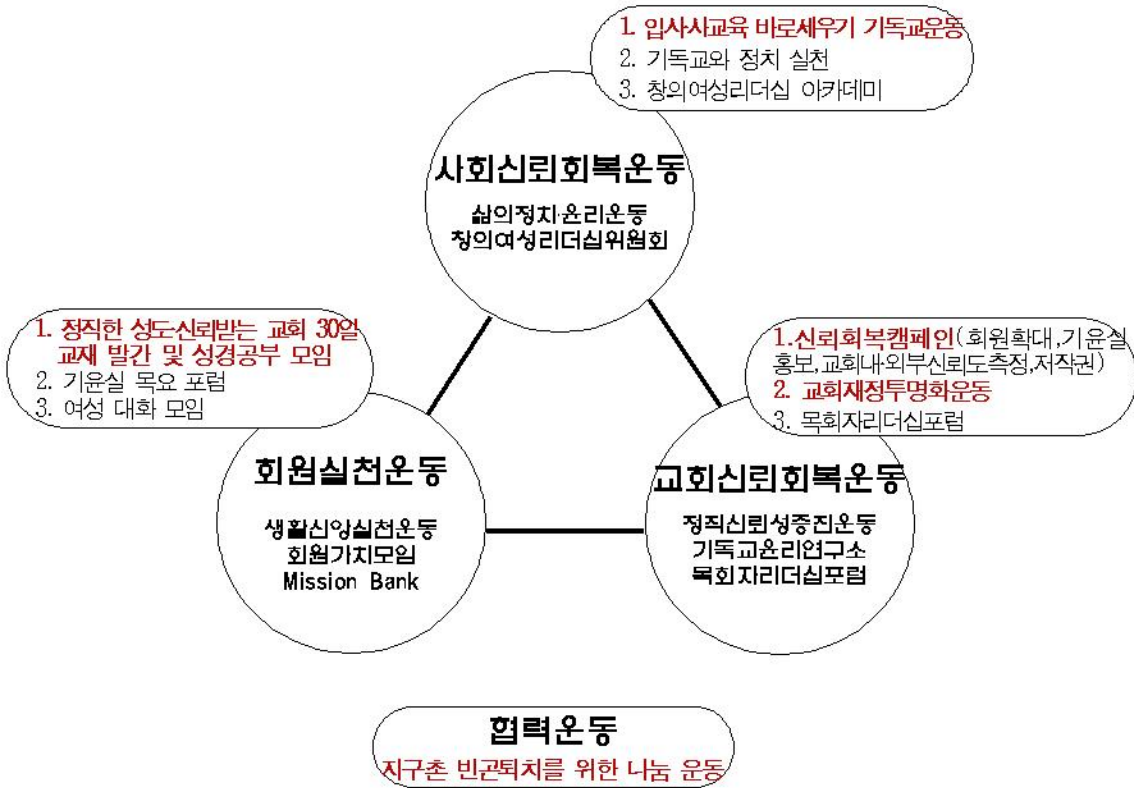
대표전화 : 02-6717-4000 후원문의 : 1544-7944 FAX : 02-6717-4294 이메일 : gni@goodneighbors.org



기윤실은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7년 김인수, 손봉호, 이만열, 이세중, 이장규, 원호택, 장기려 선생 등을 통해 시작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교회신뢰회복운동>, <사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2008 기윤실 10대 사업



기윤실의 조직

기윤실은 전국 9개 네트워크에 1,000여명의 후원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이 사 장 : 우창록(법무법인 울촌 대표변호사)
- ◎ 공 동 대 표 : 김동호(높은뜻승의교회 담임목사),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 ◎ 사 무 총 장 : 양세진

☎ 전화 : 02-794-6200 ☎ 팩스 : 02-790-8585 ✉ 이메일 : cemk@hanmail.net

🌐 홈페이지 : www.cemk.org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NGO의 비전과 사명 강연회

발행일 | 2008년 3월 13일

편 집 | 임희연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794-6200 Fax. 790-8585

홈페이지 www.cemk.or.kr

이메일 cemk@hanmail.net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NGO의 비전과 사명 강연회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기쁨의 사회
굿미선네트워크



(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The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목회사회학연구소